

국민의힘 구미(을) 국회의원 강명구

보도자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18호

T. 02-754-2844 E. myounggu.power@gmail.com



강명구 의원, “국가유공자 영구용 태극기 재고 8,253개 남았는데도 18,000개 추가 구매...예산 재검토 필요”

- 지난 5년간(2020-2024.현재) 영구용 태극기 72,300개 제작하고 8,253개 남아... 적정 재고량 10% 초과
- 보훈부,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 급증 대비해 제작 수량 늘려... 점진적으로 줄여갈 계획”
- 그럼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 18,000개 구매 요청...예산 낭비 지적
- 강 의원, “소모품 예산 관리 기준 없어 과도한 구매로 예산 낭비 초래... 관리 기준 마련해 과도한 예산 지출 막아야”

국가보훈부의 2025년도 영구용 태극기* 구입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극기 재고가 8,253개 남았는데도 보훈부가 18,000개를 더 구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운구함을 덮기 위해 지급하는 태극기**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영구용 태극기 사용 현황’에 따르면, 영구용 태극기의 제작 개수는 지난 5년간(2020-2024.8) 72,300개로, 이 가운데 8,253개가 남았다. 개당 단가는 12,200원으로 약 1억 원어치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보훈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1,000만 원을 들여 1만 8,000개의 영구용 태극기를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2020-2024.8) 지방청별 영구용 태극기 보유·지급·재고 현황>

(단위 : 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제작	15,000		16,000		19,000		14,300		8,000	
지급	서울	6,494	서울	6,387	서울	7,756	서울	7,218	서울	4,716
	부산	1,478	부산	1,539	부산	2,110	부산	1,872	부산	1,239
	대전	1,599	대전	1,452	대전	1,549	대전	1,406	대전	874
	대구	1,357	대구	1,103	대구	1,390	대구	1,272	대구	796
	광주	1,545	광주	1,418	광주	1,515	광주	1,565	광주	993
	제주	197	제주	209	제주	188	제주	192	제주	110
	기타	1,221	기타	917	기타	30	기타	55	기타	285
	소계	13,891	소계	13,025	소계	14,538	소계	13,580	소계	9,013
잔여	1,109		2,975		4,462		720		-1,013	

보훈부는 재고량이 8천여 개 상회하는 이유에 대해 ‘2021년과 2022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제작 수량을 평년보다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재고량을 활용해 정상적인 연도 수준(5-10%)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과 2022년 COVID-19와 관련하여 사망자 급증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작 수량이 평년보다 많아 재고량 증가함

2023년부터 정상적인 수준의 제작량으로 전체 제작량의 5~10% 재고량을 신규 제작물량의 제작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보유·운영하고 있음

2024년부터 재고량을 활용하여 영구용 태극기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연차별로 재고량 수준을 조절하여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연도 수준(5~10%)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임

출처 : <국가보훈부 답변서>(2024.09)

문제는 재고를 꾸준히 소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태극기 재고가 이미 당국이 밝힌 적정 재고량(7,230개)을 훨씬 초과했다는 점이

다. 여기에 더해 1만 8,000개를 추가 구매한다면, 평년 소비량으로 제외했을 때 오히려 재고량은 더 늘어난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됐는데도 당시 늘린 제작 수량 수준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매년 소비하는 소모품 성격의 예산은 관리 기준이 없어 과도한 구매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많다”라며 “적정 재고량 등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예산 지출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 강명구